



#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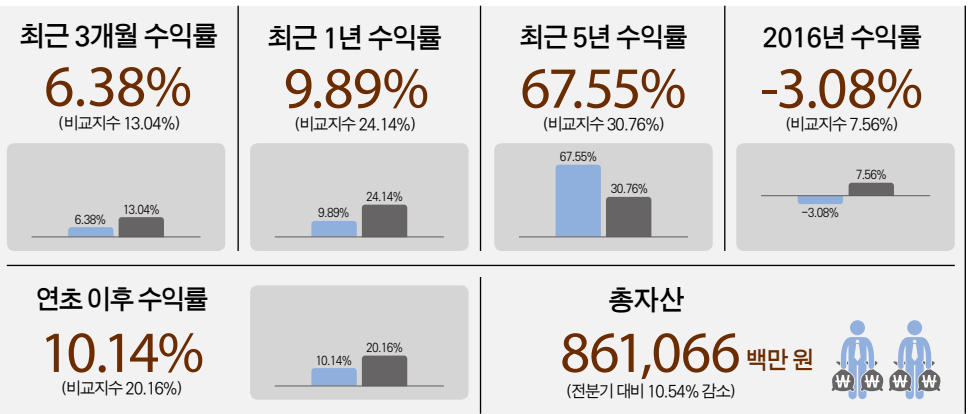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주식 편입비가 70% 이상인 주식형 펀드입니다.

★  
기업의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  
저위험 적정 수익을 추구합니다.

최초 설정일 | 2006.04.18    운용 기간 | 2017.04.18~2017.07.17



위 수익률은 거치식 투자를 가정하였으며 적립식 등으로 투자한 경우 표시된 수익률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수익률은 판매회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 분류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2016년 7월 2일부터 펀드의 투자 위험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래 표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 등급을 새로 정했습니다.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은 새롭게 적용하는 6단계 등급 체계 중 4등급(보통 위험)에 해당합니다.

등급	매우 높은 위험 (1등급)	높은 위험 (2등급)	다소 높은 위험 (3등급)	보통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3년 수익률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의 위험 등급

1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는 최근 결산일(2017년 4월 17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주간 수익률 변동을 측정하여 연 환산 표준편차가 9.05%로 산출되어 6단계의 위험 등급 체계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은 매년 결산일을 기준으로 재측정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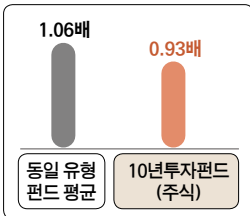
2 수익률 표준편차는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변동성이 크고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 PBR과 PER도 확인하세요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주식)는 장기가치투자 원칙을 고수하며 가격부담 없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유지합니다. 이는 펀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펀드 PBR과 PER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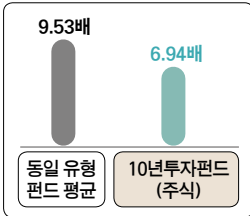
### PBR(Price to Book Ratio, 주가순자산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기업 순자산의 몇 배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B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BR이 낮을수록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이란?

주가가 한 주당 이익금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주식의 편입 비중을 감안하여 PER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펀드의 PER이 낮을수록 수익은 많이 올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은 종목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PBR=주가 / 회계연도 말 예상 순자산  
 ※ PER=주가 / 12개월 예상 순이익  
 ※ 출처 FN스펙트럼(최근 12개월간 월말 평균 / 2016.06~2017.05)  
 ※ 동일 유형 펀드 액티브주식일반 공모펀드(적극적 운용을 통해 시장 수익률 초과 달성을 추구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Vol.45  
2017.04.18~  
2017.07.17

### Step by Step!

주식시장은 여전히 뜨겁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10년투자펀드(주식)는 원래의 철학대로 우리만의 전략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지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과를 올려 투자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장기가치투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이채원 CIO와 배준범 자산운용1본부장이 전하는 펀드의 3개월

# 안정적 이익 창출하는 저평가된 기업에 계속 투자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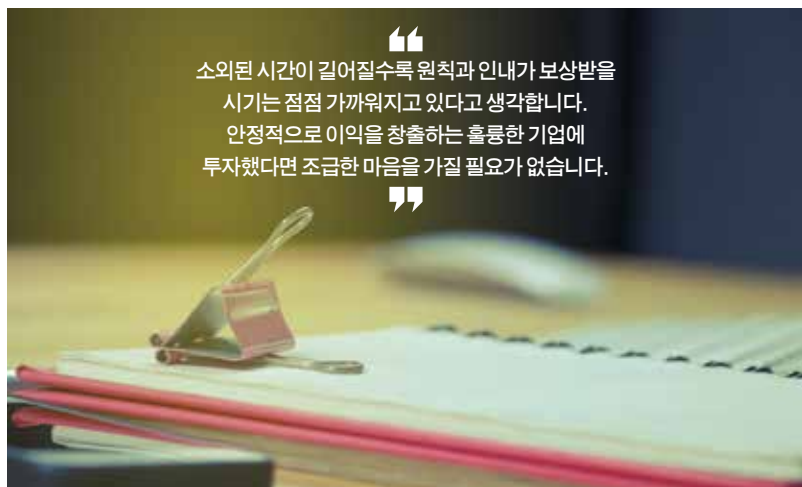
한국밸류 10년투자펀드(주식)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투자펀드(주식)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CIO 이채원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운용 기간(2017.04.18~2017.07.17)에는 식을 줄 모르는 더위만큼이나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상승세로 접어든 KOSPI는 역사적 고점을 연일 경신 중이며, 월별 기준으로는 8개월 연속 상승해 본격적인 강세장이 진행 중입니다.

##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 있지만 주식시장 강세 이어져

최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수익이 난 것은 좋지만 혹시 지금이 고점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고평가 혹은 저평가는 단순히 지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1년 동안 주가가 3배 올랐다고 해서 단순히 과거보다 고평가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기간 이익이 5배 늘었다면 이 기업은 주가가 3배 올랐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더 저평가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30% 하락했으나 이익이 50% 감소했다면 이 주식은 과거보다 고평가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익이 더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운용보고서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그리고 대외 환경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체력을 감안할 때 조정 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조정 폭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 여전히 시장 트렌드에서 소외된 가치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10년투자펀드(주식)가 KOSPI만큼 상승하지 못한 것은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진심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오랜만에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좋는데 펀드 수익률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기업 가치에 문제가 있는 종목에 많이 투자했거나, 시장 트렌드에서 소외된 종목에 많이 투자한 경우입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에 투자했다면 지금이라도 그 종목을 팔고 기업 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렌드에서 소외된 경우는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펀드매니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하거나, 시장이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치투자자의 선택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소외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칙과 인내가 보상받을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조금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 조급하지 않는 가치주 투자 이어갈 것

10년투자펀드(주식)가 보유한 주식의 상당 부분이 현재 시장 트렌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년투자펀드(주식)는 시장 대비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외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원칙과 인내가 보상받을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훌륭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조금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주 소외 현상이 심해질수록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가치주가 합당한 주가를 인정받는 국면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더 좋은 성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CIO 이채원  
자산운용1본부장 배준범

### 10년투자펀드(주식)는 이런 펀드입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펀드 재산을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에 위탁하고, 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가 재산을 취득, 처분하게 하는 **투자신탁펀드**입니다.
- 펀드 재산의 7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펀드(주식형)**입니다.
- 기존에 설정한 펀드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형 펀드**입니다.
- 하나의 펀드 내에서 투자자 그룹(class)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적용하는 **종류형 펀드**입니다.
- 투자자가 원할 때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입니다.

### 10년투자펀드(주식) 판매회사입니다

**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증권** | 교보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토러스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보험** |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 KDB생명

**기타** | 펀드온라인코리아

### 10년투자펀드(주식) 기본 정보

적용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펀드명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한국밸류 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	56287
클래스 C	A5196
클래스 S	AP750
클래스 C-E	AS481
클래스 A	BC476
클래스 A-E	BC477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	KEB하나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신한아이티스

- **공지 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한국밸류10년투자 증권투자신탁1호(주식)(모)'의 자산운용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관리회사인 'KEB하나은행'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합니다.
-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www.koreavalueasset.com  
금융투자협회: dis.kofia.or.kr



친절한 밸류 탐정의 펀드, 잘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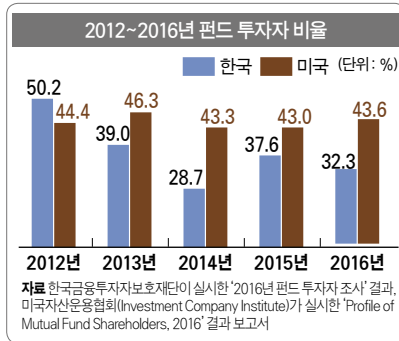
#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어떻게 다를까?

투자 목적과 기대수익률, 펀드 정보에 대한 관심 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습니다.

· 자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특성 비교', '한국과 미국 펀드 투자자들의 펀드 공시 자료에 대한 의견'

## 1 한국과 미국의 펀드 투자자 비율 변화 추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응답자는 한국의 경우 32.3%, 미국의 경우 43.6%로 나타나 미국이 약 10%p 더 높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에는 펀드 투자 비율이 50% 수준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2000년 이후 평균적으로 가계의 약 45%가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2 펀드 가입 유형과 투자자 연령 차이

한국은 연금저축 펀드 등 세제 혜택과 의무 가입 기간이 있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비율보다는 일반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고용주가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한 비율이 퇴직연금 이외의 개인적으로 투자한 비율보다 더 높았습니다. 펀드 투자자 연령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은 대체로 연령 구간별로 투자자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펀드 투자자 비중이 상승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반 펀드	96%	퇴직연금(DC형) 81%
특정 펀드	71%	퇴직연금 외 63%

## 3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펀드에 투자하는 목적 1순위는 한국 투자자와 미국 투자자 모두 '은퇴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대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31%, 미국은 74%로 한국 투자자보다 미국 투자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미국 투자자는 주로 퇴직연금을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를 대비해 펀드에 투자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4 중요시하는 펀드 정보

한국 투자자는 펀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로 50.1%가 '해당 펀드의 성과(수익률)'를 꼽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은 펀드 정보는 해당 자산운용사의 성과(수익률)가 22.4%, 펀드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가 16.2%였습니다. 한국 펀드 투자자들은 운용보고서 내용 중 관심 있는 항목 역시 수익률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6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운용 경과와 투자 환경 및 운용 계획은 12.9%, 포트폴리오 보유 내역은 9.5%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경우 펀드 투자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보수 및 수수료(투자 비용)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그림으로 표현된 연간 총수익률, 투자 목적 순이었습니다. [미국자산운용협회(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실시한 'Investor View on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roposed Summary Prospectus' 결과 보고서(2008)]

오리고 붙이고 모아두세요! 뉴스스크랩북

## 뉴스에서 많이 본 말, 스튜어드십 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지난해 말 제정된 후 새 정부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관련 공약으로 제시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이고,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1 스튜어드십 코드란? ▶ 기관투자자가

자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위탁자의 수익 극대화 관점에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관투자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강제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고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말 처음 제정되었고,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기업의 지배 구조 투명화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구체화는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료 삼성증권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 증시 재평가의 이정표'

### 2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가지 원칙

▶ 그렇다면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주요한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밝힌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의견권을 충실히 행사하기 위한 지침·절차·세부 기준을 포함한 의견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견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의견권 행사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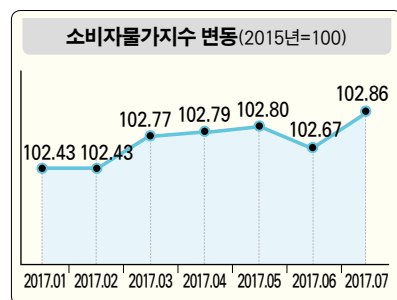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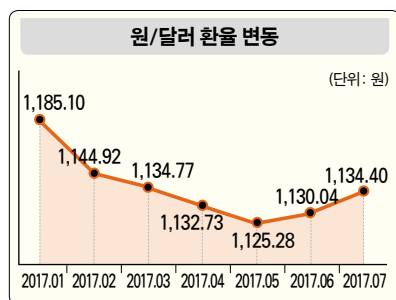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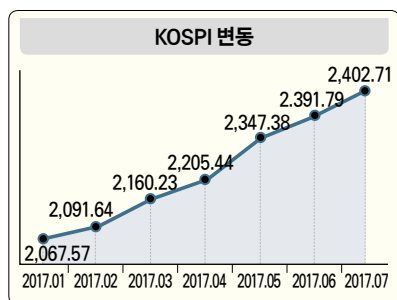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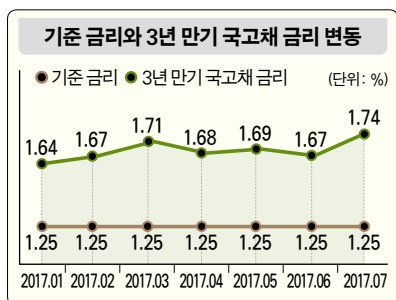
6 기관투자자는 의견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3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식시장 ▶ 2010

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일본, 홍콩, 대만 등 10여 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 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 등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도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주식시장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 배당 확대 등 변화를 이끌어내어 고질적인 주식시장 저평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 주요 지표로 본 금융시장(2017.01~2017.07)



· 자료 한국은행(KOSPI-종가, 원/달러 환율-평균 자료)